「탠디」에 나타난 양성성 연구

- 양성의 통합과 조화를 향하여 -

이종문*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국문초록】

셔우드 앤더슨의『와인즈버그 오하이오』는 24편의 단편이 그로테스크라는 공통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탠디」는 미래에 바람직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앤더슨의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이다. 이 작품의 서문인 「그로테스크의 책」에서 노인 작가의 이미지의 변화는 남성성에 여성성이 덧붙여져 통합되는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탠디」에 나타난 양성성의 주제를 예시한다.

「탠디」에서 이미 그로테스크가 되어 버린 한 낯선 젊은이는 어린 소녀에게 탠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단지 남자나

*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여자가 되는 것 이상이 되라고 당부한다. 이것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앤더슨의 이상을 보여준다. 비록 이 단편의 등장인물들이 실패한 양성성을 갖고 있지만, 앤더슨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를 넘어서고, 사회적인 성 역할에 대한 한계를 초월하여 개인을 해방시키는 양성성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이러한 양성성의 비전을 통해 미래에 젊은이를 구원하고 현대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주제어: 셔우드 앤더슨,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탠디, 양성성, 통합과 조화

I. 서론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즈버그, 오하이오』(*Winesburg, Ohio*, 1919)에 수록된 24편의 단편들은 모두 그로테스크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탠디」("Tandy")는 서문에 해당하는 「그로테스크의 책」("Book of the Grotesque")과 「손」("Hands"), 그리고 「종이 뭉치들」("Paper Pills")에 이어 초기에 쓰여진 가장 짧은 단편이면서도 이 작품의 중심에 위치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그로테스크라는 주제와 함께 앤더슨은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의 상호작용"(Klein 49-51)을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자

1) 서문을 제외하고, 「탠디」의 앞에 10개의 단편이 앞서있고, 뒤에도 10개의 단편이 위치하고 있다는 구조에서도 「탠디」는 이 책의 정확한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신의 생각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다.[2] 특히 그는 남성성은 무엇이고 또 여성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성(androgyn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비드니(Martin Bidney)가 "양성성의 신화(androgyny myth)는 앤더슨의 복잡한 책을 구성하는 원칙이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주는 통합의 비전이다"(261)라고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탠디」에서 이 개념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양성성이라는 용어는 고대 희랍어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andro"와 여성을 의미하는 "gyn"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3] "한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 모두를 가진 것을 나타내는 원형적인 이미지"(Wright 1)로서 "남성이나 여성의 성적인 특성 그리고 인간의 충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Heilbrun x)라고 말할 수 있다.[4] 양성성에 대한 흔한 오해는 이 개념이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했으며, 서구 심리학자들이 정형적인 남성적, 여성적 특징들을 통합해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성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나타났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개념들 중 하나로서,

---

2) 클레인(Mia Klein)은 예술가로서 앤더슨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네 가지는 범죄적 요소, 광기어린 요소, 유아적 요소, 그리고 여성적인 요소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44-52).

3) 양성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은 부분 여권운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몇몇 여권운동주의자들은 "androgyny"란 용어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적 어원이 먼저 나오는 "gynandry"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Kaplan and Sedney 55).

4) 양성성은 융(Carl Gustav Jung)의 심리학에서도 중심적인 개념인데, 그 이유는 개인의 성숙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남성적인 측면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남성은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숙 과정 뒤에서 이를 핵심적으로 통합하는 원형적인 이미지인) 자아는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 모두를 갖고 있으며, 정신의 핵심이 되고 총체가 된다(Wright 1).

이러한 주제는 특히 신화와 문학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져왔다(Kaplan and Sedney 55). 싱거(June Singer)는 『양성성: 성의 새로운 이론을 위하여』(*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1977)에서 동양과 서양의 창조 신화의 양성적 요인들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양성성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원형일지 모른다고 지적하고(20), 헤일브런(Carolyn G. Heilbrun)은 『양성성의 인식을 위하여』(*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1982)에서 오랫동안 문학 평론가들이 간과해왔던 문학에서의 양성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 주제가 분명히 나타났던 시기를 고대 그리스 시대, 중세 시대,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특히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들, 문학 형태로서의 소설이 발달하기 시작한 현대로 나눈다(3-45). 이들의 연구를 통해 심리적인 양성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앤더슨 역시 이러한 전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앤더슨은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자신의 남성성을 의심하는 한편 자신의 내면에서 여성적인 요소를 인식했다. 그는 『자서전』(*Memoirs*)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비난하며, 그 자신도 성장해서 결국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했다.[5]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하는 등, 그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사랑이라는 모호한 감정을 느끼면서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신의 작품에서 반복해서 다루게 된다. 이에 반해 그는 어머니가 홀로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본 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열 아홉 살 때 결

5) 앤더슨은 아버지를 "남부 출신의 몰락한 멋쟁이"로서 "로맨스를 위해 태어났고 진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A Story Teller's Story* 3-4), 첫 번째 소설인 『윈디 맥퍼슨의 아들』(*Windy McPherson's Son*, 1914)에서는 아버지를 거짓말쟁이이자 허풍선이로 묘사한다.

국 가난과 힘든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낭만적으로 이상화시키며 그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에서 다루었고, 실제로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를 어머니에게 헌정한 바 있다. 후에 그가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한 것에 대해 심리분석가들은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탐색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Klein 40-1). 이러한 자전적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앤더슨은 "보통의 여성이 평범한 남성보다 더 친절하고 섬세하며 동정심을 발휘하는, 대체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A Story Teller's Story* 216)을 인식했는데, 그것은 여성에게 있는 성숙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가로서 그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영감의 근원을 여성에게서 찾았다.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며, 예술가는 여성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종종 자신의 작품을 언급할 때 어머니가 아이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하곤 했다(Klein 49). 그는 늦은 가을 잠옷도 입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던 어느 비오는 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의 톤을 생각하면서, 나는 막 임신한 여성처럼 되었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몸 안의 벽에다 이야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A Story Teller's Story* 358)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앤더슨의 창조적인 힘은 "임신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Klein 49)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가 자신을 여성으로 상상하는 것은 그의 소설의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6]

---

6) 이와 관련하여 앤더슨은 편지에서도 "내 작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인가? 라는 당신의 세 번째 질문은 마치 어머니에게 좋아하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Letters* 149)라든가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같은 책 266) 또는 "내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일어나서

이와 같이 앤더슨이 자신의 내면에서 여성성을 인식한 것은 「그로테스크의 책」에서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노인 작가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이는 「탠디」에서 제시하려는 양성성의 주제를 예시한다. 그는 마치 노인 작가가 "임신한 여성 같았다. 단지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아기가 아니라 젊은이였다. 아니 그것은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여자로서, 기사처럼 쇠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24)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그는 처음에는 여성처럼 보이지만, 곧 젊은이의 이미지로 바뀌고, 다시 젊은 여자의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결국 무장한 기사라는 마지막 이미지로 돌아온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잔 다르크(Joan of Arc)와 돈키호테(Don Quixote) 사이의 양성적인 모호함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융합되고 균형"(Bidney 262)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노인 작가의 양성성에 대한 비전은 그가 육체적으로는 쇠약하지만 오히려 그의 내면은 글을 쓰려는 왕성한 상상력과 젊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이 젊음이 노인을 구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탠디」는 다른 단편들과의 형식적인 차이와 불분명한 의미로 인해 비평가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탠디」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또는 양성성에 대한 앤더슨의 생각과 이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단편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양성성의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 있습니다. … 나는 마치 여자가 출산을 한 다음에, 첫 아기를 팔에 안고 있을 때 느끼는 것처럼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같은 책 317)라고 쓰고 있다.

II. 본론

『와인즈버그, 오하이오』의 다른 단편들은 등장인물이 삶을 경험해 가면서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뒤틀어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그로테스크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로테스크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탠디」에서는 어린 소녀가 이미 그로테스크가 되어버린 타인의 진실에 사로잡히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통일성 속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변이"(variation)(Arcana 66)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다른 단편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는 앤더슨의 정교한 그로테스크 이론을 더욱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남성은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여성뿐 아니라 여성의 특성도 필요로 한다는 이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준다.

이 단편에는 아버지 톰(Tom Hard)과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 그리고 낯선 술주정뱅이 젊은이 등 세 명의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이 단편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소녀는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있는 페인트칠도 되지 않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묘사될 뿐, 그녀의 원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종교와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어린 딸에게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그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파괴하는데 몰두하여 어린 딸에게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을 보지 못한다"(143). 그러나 갑자기 와인즈버그에 나타난 낯선 젊은이는 이 소녀에게서 아버지가 보지 못한 신의 모습을 보았고, 어린 소녀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단편의 또 다른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소녀와 마찬가지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젊

은이는 클리블랜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는 도시의 친구들을 피하면서 술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지만, 와인즈버그라는 중소도시의 지루함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어느 늦은 저녁, 폭음에서 깨어난 젊은이는 뉴 윌러드 하우스 앞쪽에 앉아 있는 톰과 어린 소녀, 그리고 조지(George Willad)에게 다가가 자신의 곤경을 웅변하듯이 토로한다. 그는 자신이 술에만 중독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144)을 찾는 일에도 중독되었으며,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파멸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진실을 붙잡고 그것을 왜곡시켰으며,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는 탐색과 집착이 그를 그로테스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와인즈버그의 다른 그로테스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뒤틀린 삶 속에서도 강렬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마침내 그 중심에 있는 진실을 드러낸다. 슬픔에 사로잡힌 듯 했지만 열차에서 들리는 또 다른 기적소리에 의해 깨어난 그는 어린 소녀를 뚫어지게 보면서 "한 여자가 오고 있어... 나는 그 여자를 놓쳤어... 네가 그 여자일 수도 있어"(145)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에 사랑하는 여자를 놓쳐버렸으나 앞으로 새로운 특성을 가진 여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소녀가 자신이 꿈꿔온 이상적이고 완벽한 여자일 수 있다고 상상한다. 아카나(Judith Arcana)는 이 젊은이의 생각이 곧 여성을 바라보는 앤더슨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설명한다. 그녀에 의하면, 앤더슨은 여성이 남성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의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68). 마치 「선생님」("The Teacher")에서 고등학교 여교사인 케이트(Kate Swift)를 "정원의 주춧대 위에 놓인 작은 여신의 모습"(160)으로 묘사하고

있듯이, 앤더슨은 여성을 남성과 다르거나 또는 더 뛰어난 존재로 보았다. 또한 『자서전』에서 앤더슨이 "여자들은 흐르는 개울물과 같아서 나는 그 속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다.... 그들은 한 여름의 비가 나를 씻기는 것처럼 나를 씻긴다."(554)라고 말한 것은 여성이 남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작가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 젊은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본능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Bunge 248)는 자신의 이상을 토로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들은 여자가 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표현한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상적인 여성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45).

> 나는 그 여자의 투쟁과 좌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그 여자의 좌절 때문이다. 그녀의 좌절로부터 여성의 새로운 특성이 태어난다. 내가 그것을 위해 이름을 하나 지었어. 난 그것을 탠디라고 부르지.

> I know about her struggles and her defeats. It is because of her defeats that she is to me the lovely one. Out of her defeats has been born a new quality in woman. I have a name for it. I call it Tandy.

여기서 앤더슨이 만들어낸 "탠디"(Tandy)라는 신조어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이나 사랑을 위해 투쟁을 하고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패배로부터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미래의 여성이자 새로운 여성"(Bidney 263)을 상징한다. 이 낯선 젊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후 보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술 취한 입에 어린 소녀의 두 손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고, 마치 신

탁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145).

> “아이야, 탠디가 되어라.” 그가 간절히 말했다.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길이다. 어떤 것이든 모험을 하거라. 대담하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용감해져라. 단지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 이상이 되어라. 탠디가 되어라”

> “Be Tandy, little one,” he pleaded. “Dar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That is the road. Venture anything. Be brave enough to dare to be loved. Be something more than man or woman. Be Tandy.”

그가 말한 탠디의 특성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강해야한다”(145)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도권이나 용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사랑받는다는 것은 친밀함이나 수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어린 소녀에게 원한 것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 즉, 능동과 수동, 대담함과 상처받기 쉬움, 사랑할 필요와 사랑받을 필요 등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각각의 성이 갖는 한계를 초월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7] 결국 몽상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한 젊은이가 소녀에게 “단지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 이상이 되어라”라고 당부한 것은 “이 작품 전체의 의미에 있어서 중심적”이며 그 의미는 곧 “남성과 여성을 합친 존재가 되라”(Be man plus woman) 또는 “양성적인 존재가 되

---

7) 양성성이 제한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비평가 로젠메이어(Thomas Rosenmeyer)가 디오니소스(Dionysus)를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것처럼 묘사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남성 속의 여성(woman-in-man) 또는 여성 속의 남성(man-in-woman)으로 제시하며, 강한 힘은 부드러움과 섞이고, 장엄한 공포는 교태를 부르는 시선과 섞이는 등 한정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온 성적인 한계를 포기해야만 한다(Heilbrun xi).

라"(Be the androgyne)(Bidney 263)는 뜻을 강하게 함축한다.

앤더슨의 이러한 양성성에 대한 비전은 '양성적 정신'(androgynous mind)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1929)의 마지막 장에서 울프는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은 한 소녀와 밤색 오버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만나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았을 때 분열해있던 정신이 융합되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정신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녀는 "위대한 정신은 양성적"이라는 콜리지(Samuel Coleridge)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융합이 이루어질 때 정신은 발달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됨으로써 창조 행위가 완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98).[8] 따라서 양성성은 한 개인에게서 남성적인 특성이나 여성적인 특성 중 어느 한쪽 특성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특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해의 정신"(Heilbrunx)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예술가의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의 통합과 조화에 대한 앤더슨의 비전은 『와인즈버그, 오하이오』의 다른 단편인 「굴복」("Surrender")에서 "모든 것이 기쁨과 활기에 차 있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틀림없이 뺨에 바람을 느끼듯 우정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88)는 루이스(Louise Bentley)의 이상에도 잘 투영되어 있다. 결국 「탠디」에서 "단지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 이상이 되라"고 당

8)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양성성 이론을 잘 보여주었다면, 1년 후에 출판된 『올란도』(*Orlando*, 1928)에서는 그 이론을 실험하며 남성인 올란도가 여성으로 전환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체험한 경험을 다루고 있다. 헤일브런은 "울프는 우리들에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애정어린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양성적인 문학을 제시해주었다."(Hoffman 395)라고 평가한다.

부하는 절정의 순간에 젊은이는 어린 소녀의 미래의 성장에 있어서 “양성성의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Bidney 261)을 본 것이며, 그의 당부와 기원은 그녀의 앞날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낯선 젊은이는 이 말을 마치고나서 하루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음주 습관도 고치지 못한 채 와인즈버그를 떠나버리지만, 그가 남긴 말은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삶에 신비롭고도 이상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젊은이나 소녀의 아버지는 모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로테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젊은이가 타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반면 아버지는 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공허한 논리를 만들어갈 뿐이다. 아버지가 젊은이의 예언의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예전처럼 딸의 원래 이름을 불렀을 때, 소녀는 “난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지 않아요. … 난 탠디라고 불려지고 싶어요. 탠디 하드”(146)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반발은 오직 어린 소녀만이 낯선 젊은이가 말한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시선과 예언의 말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뒤틀린 진실마저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신마저 그로테스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탠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소녀는 아마도 낯선 젊은이의 예언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비극적인 욕망을 어린 소녀에게 투영한 젊은이가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며 길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은 “강하고 용기있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 단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녀가 흐느껴 울면서 “난 탠디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장면은 낯선 “술주정뱅이가 가져다 준 말의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자신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146)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보잘 것 없

는 한 소녀에게 탠디가 될 수 있다는 이상은 삶의 비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슬픔 속에 자신을 던진 것이다. 결국 이 단편에 등장하는 아버지 톰이나 낯선 술주정뱅이, 그리고 어린 소녀 모두 앤더슨이 추구하는 양성성의 비전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하고 대담하며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남성적인 특성과, 부드럽고 상처입기 쉬우며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여성적인 특성을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더슨이 이 작품을 쓰면서 끊임없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애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양성적인 통합"(Bidney 267)이다. 비록 그의 등장인물은 양성적인 통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이들의 실패는 앞으로 다가올 통합을 위한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헤일브런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성적인 대립과 젠더의 감옥(sexual polarization and the prison of gender)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역할과 행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계로 향하는 움직임에 놓여있다"(ix-x)고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있듯이, 앤더슨에게 양성성이란 남성과 여성 고유의 특성이 갖는 한계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미래에 젊은이를 구원하고 현대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탠디」는 미래에 바람직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앤더슨의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여성의 인간적인 성숙함을 인

식했으며, 실제로 이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자신의 창조적인 영감과 힘의 근원을 여성성에서 발견한다.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 작품의 서문인 「그로테스크의 책」에서 노인 작가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노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임신한 여성, 아기, 젊은이, 젊은 여성, 그리고 쇠비늘 갑옷을 입은 기사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미지의 변화는 남성성에 여성성이 덧붙여져 통합되는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탠디」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성성의 주제를 예시한다.

「탠디」의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로테스크가 되어 버린 한 낯선 젊은이를 만나게 된다. 그가 소녀에게 단지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 이상이 되라고 당부한 것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양성이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앤더슨의 이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단편의 등장인물들은 파괴적인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에서 자신의 좌절을 상쇄하려고 한다. 무신론이라는 공허한 신념에 사로잡힌 아버지나 술에 중독된 낯선 젊은이 뿐 아니라 탠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소녀 역시 앤더슨의 통합된 양성성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한다. 비록 이들이 모두 실패한 양성성을 갖고 있지만, 앤더슨은 「탠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를 넘어서고, 사회적인 성 역할에 대한 한계를 초월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양성성의 비전과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derson, David D., ed. *Critical Essays on Sherwood Anderson.* Boston, Mass.: G. K. Hall, 1981.

Anderson, Sherwood. *A Story Teller's Story.* New York: Viking P, 1969.

Arcana, Judith. "'Tandy': At the Core of *Winesburg*" *Studies in Short Fiction* 24-1 (Winter 1987): pp. 66-70.

Bidney, Martin. "Anderson and the Androgyne: 'Something more than man or woman'" *Studies in Short Fiction* 25-3 (Summer 1988): pp. 261-273.

Bunge, Nancy L. "Women in Sherwood Anderson's Fiction" *Critical Essays on Sherwood Anderson*, Ed. David D. Anderson. Boston, Mass.: G. K. Hall, 1981. pp. 242-249.

Ferres, John H. *Winesburg, Ohio: Text and Criticism.* New York: Viking P, 1966.

Heilbrun, Carolyn G.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Norton, 1982.

Hoffman, Daniel. ed. *Harvard Guide to Contemporary American Writing.* Cambridge: The Belknap P, 1979.

Kaplan, Alexandra G. and Mary Anne Sedney.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Klein, Mia. "Sherwood Anderson: The Artist's Struggle for Self-Respect"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3-1 (Feb 1977): pp. 40-52.

Jones, Howard Mumford and Walter B. Rideout. Eds. *Letters of Sherwood Anderson.* Boston: Little, Brown, 1953.

White, Ray Lewis. *Sherwood Anderson's Memoirs.*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69.

Singer, June.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1977.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1957.

Wright, Elizabeth. Ed. *Feminism and Psychoanalysis: A Critical Dictionary.* Oxford, UK: Blackwell, 1992.

A Study of the Androgyny in "Tandy": Toward an Integration and Harmony between the Sexes

Lee, Jong-Mo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ndrogyny in "Tandy" and shows that Anderson's vision of androgyny is the unifying principle in interrelated short stories in *Winesburg, Ohio.* First, in "The Book of Grotesque", Anderson presents androgynous possibility of old writer whose image forecasts the subject of androgyny in "Tandy".

In "Tandy", the stranger is addicted to habitual drinking and the search for a thing to love, and such a devotion has made him grotesque. When he has come to Winesburg to rid himself of his habit, he sees the androgyne vision as realizable in the growth of a little girl. The mysterious drunkard imagines a new quality in woman is coming, predicts the little girl's future, and names her Tandy that has the meaning of being strong to be loved. Tandy is something more than man or woman whom the visionary drunkard envisions as the ideal woman. After he projects his tragic vision into the little girl, he fears that his faith will not be realized in the future. At the end of this story, the father who did not give any importance to the stranger's words, addresses his daughter by her real names. At that, the little girl bursts into tears bitterly and entreats her father to call her Tandy.

Anderson's conception in "Tandy" is not just to show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What he means by saying "something more than man or woman" to Tandy is that we need to liberate the individual from the restricting prison of gender roles. Although Anderson's characters fail to have the androgyny, I put a high valuation on his vision that every individual should integrate feminine and masculine characteristics and achieve harmony between the sexes.

Key Words : Sherwood Anderson, *Winesburg, Ohio,* Tandy, androgyny, integration and harmony

이 종 문
소속 :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전화번호 : 031-299-1308
전자 우편 : ejm24@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